

삼일 충혼비

충혼비의 원편

징역 2년 이현우 • 이종욱 • 이종근 • 이문조
징역 1년 6개월 이종필 • 최현구 • 황정달
징역 8개월 이종용 • 박규환 • 김재수 • 권석운 • 이홍준 • 최금석 • 서무출 • 최현표
태형 90도 백봉근 • 최원득 • 김송근 • 이근복 • 윤학이

비 문 (충혼비 후문)

일천구백 십구년 삼월일일 독립운동이 서울에서 일어나매, 삼천리 각처에서 우레같이 호응 곁기하였다. 병영에서는 병영 청년회 간부 양석룡, 이현우, 이종욱, 이문조, 박영하, 이종근, 김장수, 이종필 등이 몰래 모의 획책하여, 사월오일 오전 아홉시에, 병영 일신학교 학생들의 합세를 얻어, 대한독립 만세란 깃발을 앞세우고, 사람마다 손에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우렁차게 부르면서, 큰 길로 나아가다가, 울산읍에서 급히 달려온 일본 수비대와 순사 수십명에게 십여명이 잡혀갔다. 그 이튿날에는 남아 숨었던 청년회 간부들과 문성초, 윤학이, 최현구, 황정달, 백봉근들이 합동 획책으로, 전날보다 더 큰 기세로써,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큰길과 성뚝으로 행진하니, 미리와서 기다리던 성밖 촌락의 많은 사람들도 함께 참가하여, 만세소리가 성안천지에 가득차다. 노도같은 군중들은 경찰주제소로 돌진하자, 때마침 울산읍으로부터 몰아닥친 수비대 일병들은 주모자 여럿이를 읍으로 잡아보낼새, 수천 군중은 한결같이 만세를 부르면서, 잡힌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수비대를 포위하였다. 무자비한 일병의 쏘는 총탄에 엄준, 문성초 주사문, 김응용 네 열사는 그 자리에서 순사하고 송근찬, 김규식, 김두갑 서이는 중상을 입었다. 절치부심의 통분을 무엇으로 형언하랴, 이때 철장에 구속된이 모두 이십이명에, 이년 내지 육개월의 징역형을 받은이가 열일곱명, 태형 다섯명 무죄 두명이었다. 극악무도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속에서, 겨레의 자유 정신으로 세계에 선포하고자, 우리 고장의 청년용사들의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을 하던 모습의 길이 후세의 거울로 전하고자 이 충혼비를 세운다.

최현배는 글 짓고, 조원규는 글 시고 새김

서기 일천구백육십칠년 사월오일

병영삼일사 재건 기성회 세움

애국지사 존영



엄 준 열사 주 사 문 열사 문 성 초 열사 김 응 룡 열사



이 현 우 지사



이 종 욱 지사



이 종 군 지사



이 문 조 지사



황 정 달 지사



이 종 필 지사



김 장 수 지사



양 석 동 지사



이 종 룡 지사



최 금 석 지사



김 재 수 지사



서 무 출 지사



이 홍 준 지사



최 현 표 지사



김 송 군 지사



윤 학 이 지사



백 봉 군 지사



최 현 구 지사



박 규 환 지사



권 석 운 지사



최 원 득 지사



이 근 복 지사